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가 코드도 쓰고, 게임도 만들어 주는 시대에 나는 뭘 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는 저는, AI가 어려워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도록 도구와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죠.

지금은 엔트리를 다뤘지만, 여기서 사용한 설계는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 규칙을 중간 명세로 표현하고, 전용 도구와 연결하고, 실행 결과를 검사해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분야가 바뀌면 연결 도구와 검사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실제 업무 하나를 정해, 정확도와 작업 시간, 사람이 개입한 정도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가 많은 일을 해 주는 시대에,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엔트리 바이브코딩은 그 생각을 직접 구현해 본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